

기지가 커는 '컨세션 사업'... 상승기류 타고 실적 회복되나

CJ프레시웨이, 레저·컨세션 부문 매출 1636억 전년 대비 44% 증가 롯데GRS, 올 1~2월 매출 75% ↑ 풀무원푸드앤컬처도 186% 상향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구내식당 그린테리아에서 고객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CJ제일제당

코로나19를 거치며 주춤했던 컨세션 사업이 다시 기지가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리오프닝과 함께 노마스크(마스크 해제)가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세션 사업은 식음료 위탁 운영으로, 공항·병원·휴게소·대형 상업용 빌딩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다수의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자사 브랜드를 입점시켜 출점을 늘릴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수장소에 자리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식품업계는 리오프닝에 따른 유동인구가 늘자 관련사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골프장, 휴게소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컨세션 사업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레저 및 컨세션 부문 매출은 1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 신규 수주 규모도 2020년 이후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데믹이 지난해부터 본격 화됨에 따라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시즌별 메뉴 개발과 장소에 걸맞는 메뉴 제공 등 차별화 운영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고물가·외식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물류·R&D·데이터 등 전사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GRS의 컨세션 사업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5% 신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롯데GRS는 2016년 강동경희대병원을 시작으로 공항·역사·호텔·놀이공원

F&B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15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장 조성에 힘썼으며, 선택지의 다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 개발을 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2027년 오픈 예정인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 휴게 시설 개발 민자유치사업 협약식을 맺어 지속적인 컨세션 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영역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해외 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대형병원, 고속철도역사(SRT) 등 과거 취식에 대한 제한 요소들이 해제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입점 상권 및 환경에 따라 브랜드 카테고리 체계를 다채롭게 확장 및 적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도 휴게소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광주·원주 방향)'를 비롯해 전국에 21개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게소 운영에 차

질을 빚으면서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실적 반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따르면, 컨세션 사업의 올해 1~2월 누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6% 상향됐다.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235%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공항채널이다. 팬데믹 기간 운영 중단 됐던 인천·김포·김해공항 등 공항 국제선 사업장이 국제선 운항재개와 수요회복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운영재개되면서 실적도 정상화되고 있다. 리조트, 호텔 등 레저채널도 국내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160%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비건 브랜드 '플랜튜드' 대중화와 함께 천안종합터미널 내 1층 푸드코트를 4월 말~5월 초 신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공공 예상되는 인천·김포공항 등의 식음시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존 공항 식음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영업중인 당사 사업장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 역량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영, 중동서 韓 中企·벤처 영역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UAE·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 안고 집에 간다" 소감 사우디선 Biban 기초 연설 두바이에는 GBC 개소 참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월드컵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동에서 한국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등 왕성한 '경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한 이 장관은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시간 (12일) 저녁 11시. 이제 호텔에 도착했다"면서 "집싸고 새벽 3시 반에 호텔을 나가야 한다. 오늘 만 미팅 7개를 소화했다. 그래도 성과를 안고 집에 간다"며 짧막하게 현지에서의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 산업자원부, 교통부, 순례부, 정보통신부 장관들을 연달아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특히 이 장관은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사우디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계신 분을 만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자 감사했다"면서 알 카사비 장관이 자신에게 "사우디의 장관들 모두 대한민국 중기부 장관이 이영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됐다. 이 자산을 갖고 사우디에서 대한민국

아울러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MISA) 장관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이들 10개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사우디 투자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12일 만찬을 함께하는 등 하루 사이 3번을 만나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 장관과 동행한 중기부 임정옥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 장관이 한국의 벤처생태계에 대해 소개하는 키노트 발표 이후 사우디 장관들의 사우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장관들은 사우디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에서 배워야 하는데 여기 한국 창업생태계를 소관하는 중기부 장관이 와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의 도움을 받아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열기로 추가 합의했다.

이 장관은 "리야드에 GBC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中 인테리어 시장 추가 공략 나서

'광저우 디자인위크' 참가 장식필름 등 신제품 80여종

현대L&C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광저우 디자인위크(Guangzhou Design Week) 2023'에 참가하며 중국 시장 추가 공략에 들어갔다.

13일 현대L&C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인 인테리어 스톤과 장식 필름 신제품 30종을 비롯해 총 8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천연 석영을 90% 이상 사용한 엔지니어드 스톤인 '한스톤(수출명 Hanstone)'과 함께 최근 론칭한 세계 최초로 천연석 퀴차이트(규암) 무늬를 구현한 '오피모 컬렉션(Opimo Collection)'을 중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한 목재 무늬를 선호하는 현지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중국 전용 고급 우드 패턴'을 적용한 인테리어 필름 '보닥(Bodaq)'이 현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현대L&C는 올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현지 상업시설 등 인테리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공략하기 위해 중국 전용 디자인 제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앞세워 현지 상업용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의 제휴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L&C 김완중 중국법인장은 "중국 현지 건설사·설계사·가구사 등 주요 제휴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대리점 출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 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신규 지원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상반기 신청

기술보증기금이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신규로 지원한다.

13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신

청은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이내다. 지원절차, 조건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보는 2011년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2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승호 기자